뉴시티교회 초등부

리딩지저스

2026. 8. 31. (월) — 9. 5. (토)

하늘이 열리니

예레미야애가 4~5장 · 오바댜서 · 에스겔 1~19장

이름 _____

나의 이번 주 마니또를 잊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챙겨줍시다!ㅎㅎ

여는 글

이번 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무너진 예루살렘 옆에서 우는 노래, 애가를 읽었지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 노래의 마지막 두 장을 마저 읽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가요. 다들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끝났나 봐" 하고 슬퍼하던 그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끌려간 곳까지 찾아가세요. 이번 주,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날에도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이번 주 한눈에

6일간의 여정

01	8월 31일 (월)	**포로의 땅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02	9월 1일 (화)	**말씀을 꿀처럼 먹어요**
03	9월 2일 (수)	**숨어서 하는 일도 보고 계세요**
04	9월 3일 (목)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될게**
05	9월 4일 (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06	9월 5일 (토)	**돌이키면 살아요**

예레미야애가 5장, 에스겔 1~2장

8월 31일 (월)

오늘의 말씀

애가 5장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 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스겔 1장

1 제 삼십년 사월 오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 여호야긴왕의 사로잡힌지 오년 그 달 오일이라

3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1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2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8월 31일 (월)

포로의 땅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애가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이야기는 포로의 땅 바벨론으로 갑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포로의 땅,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은 바퀴가 달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무너진 것은 성전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끌려간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생각 & 적용 질문

이번 주 월요일에는 6월에 읽었던 오바댜서도 한 번 더 읽어요. 슬프고 외로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한 마디를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3장

9월 1일 (화)

오늘의 말씀

3장

1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4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5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7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퍅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10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9월 1일 (화)

말씀을 꿀처럼 먹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주시며 "먹으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먹어 보니 입에서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슬픔과 재앙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단치시는 말씀조차 그 안에 단맛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대충 읽는 것과 꼭꼭 씹어 먹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고, 나중에는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각 & 적용 질문

밥은 매일 먹으면서 성경은 며칠씩 굶은 적이 없나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꿀처럼 달게 느껴진 한 구절을 골라서, 세 번 소리 내어 읽고 아래에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8장, 9장, 10장

9월 2일 (수)

오늘의 말씀

8장

6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9장

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10장

18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9월 2일 (수)

숨어서 하는 일도 보고 계세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보여 주셨습니다. 성전 마당에서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죄를 보며 슬퍼서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먼저 챙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갔던 영광은 예수님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 적용 질문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하는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숨어서 하는 일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두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오히려 든든한 것 한 가지를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11장

9월 3일 (목)

오늘의 말씀

11장

1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5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16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간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17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8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9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월 3일 (목)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될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전 건물이 없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갈 길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길이 되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도 약속하셨습니다.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빼내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으니,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 & 적용 질문

교회가 아닌 곳, 예를 들어 학교나 학원이나 내 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번 주에 교회 밖에서 기도할 나만의 장소와 시간을 하나 정해서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16장

9월 4일 (금)

오늘의 말씀

16장

4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 너를 돌아 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6 내가 네 곁으로 지나 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9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10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11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드리우고

12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13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14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0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9월 4일 (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 오늘의 묵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져 죽어 가던 아기 같았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아기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은 그 아기를 살리시고, 씻기시고, 예쁜 옷을 입히시고, 왕후처럼 귀하게 길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네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 생각 & 적용 질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세 가지 적어 보고, 한 가지씩 소리 내어 감사 기도를 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에스겔 17장, 18장

9월 5일 (토)

오늘의 말씀

17장

2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23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24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8장

3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9월 5일 (토)

돌이키면 살아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 구절을 적어 보세요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의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높은 산에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 작은 그 가지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온갖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됩니다. 그 연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호소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내일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돌이키고, 새 마음으로 예배하러 가요.

생각 & 적용 질문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일이 있나요?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주일예배 때 새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기도를 한 줄 적어 보세요.

기도로 마칩니다.

주 일 예 배

설교 노트

설교 아웃라인 〈하늘이 열리니 (초안)〉

시리즈 미정 · 에스겔 1:1–3, 26–28 (설교 확정 시 교체)

말씀을 들으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한 문장 메시지: 무너진 것은 (①_____)이지, 하나님의 (②_____)가 아니다.

1. 하늘은 어디서 열렸나요? (1절)

예루살렘이 아니라 포로의 땅, (③_____) 강가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자리가 하나님을 (④_____) 자리가 됩니다.

2.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나요? (26–28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⑤_____)을 보았습니다.

보좌에는 (⑥_____)가 달려 있어서, 하나님은 백성이 끌려간 곳까지 찾아가십니다.

에스겔은 그 앞에 (⑦_____)렸습니다.

3. 하늘을 여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요 1:51)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⑧_____)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바로 (⑨_____)입니다.

하늘이 (⑩_____) 것 같은 날에도 예수님이 하늘을 여십니다.

한 줄로 새기기

9월의 첫 주일, 낯설고 힘든 자리에서도 하늘을 (⑪_____) 하나님을 믿고, 새 (⑫_____)으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 자유 필기 노트